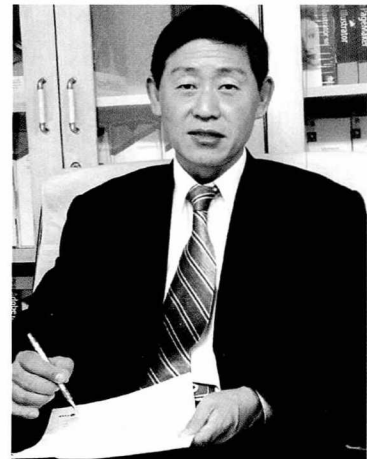


## “서울 중심부 환경보호 우리손으로”

출력 및 인쇄사인 (주)정문사아트컴을 20여년째 운영하고 있는 강성곤 사장이 지난 10월7일 자연보호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.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인쇄산업.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인쇄인들은 환경보호에 대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. 이에 따라 자연보호협회의 역할에 우리 인쇄인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있다.

강 사장은 “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모든 산업체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”이라면서 “특히 중구 일대의 인쇄사들은 관계당국의 단속에 따라가기 전에 먼저 오염물질 방출 방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했다. 이를 위한 정부, 각 단체의 계도활동이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이요 업계 스스로의 각성도 필요하다는 것이 강 사장의 생각이다.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폭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. 이미 미국, 유럽 등 선진 각 국의 환경보호 노력과 이에 따른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을 다루는 것에 빗낼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.

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연보호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를 이끌어 가려는 강 사장의 의지는 매우 굳다. 특히 수년간 JC(서울 중구 청년회의소), 라이온스 클럽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조직생활을 해 왔던 경력을 밑거름 삼아 강 사장은 제3대 협의회에 입성하자마자 협의회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. 먼저 수석부회장과 사무국장, 사무차장을 두는 한편, 내외부문 행사를 기획, 총괄하는 부회장을 선임해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



변모시킨다는 구상이다. 또 단체 활성화를 목표로 회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각 동 월례회의에 참석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. 이 외에도 강 사장은 “시대 흐름으로 봐서 이제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가 생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. 자연보호가 환경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”며 대외 홍보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. 또한 “회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숭선수범으로 협의회 발전에 앞장설 것이며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”고 밝혔다.

강사장은 또 인쇄인답게 중구 지역의 인쇄인들이 환경문제로 인한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빼놓지 않는다.

한편, 사단법인 자연보호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1999년 9월, 5백명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는 회원수가 6백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특히 남산과 청계천 등이 가로지르는 서울의 중심부 중구의 자연·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매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<조갑준 기자>